

탄소중립 · 국토정보로 사회적 가치 실현

LX, 창사 44주년 맞아 ESG 경영 원년 선포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창사 44주년을 맞아 ESG경영 원년을 선포했다. LX공사는 지난달 30일 전주 덕진구 LX 본사 강당에서 창사기념식(7월1일)을 맞아 ESG 경영 선포식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주시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이다.

미래를 ON하고 사회를 옹호하는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선포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박지현 한국전기인력공사 사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김정범 비상임이사가 참석했다. LX공사는 이날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선도 ▲국토정보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으로 3대 전략



LX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이 지난달 30일 LX 본사에서 창사 4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말하고 있다.

향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LX공사는 사용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탄소배출을 제로화하며 경영 전반에 탄소배출을 줄이기를 실천한다. 또한 공간정보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토·도시문제 해결하고 공간정보 창업 지원과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지구촌 도시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이어간다. 아울러 투

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준법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호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ESG 경영 항목 공시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LX공사는 전주시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ESG 경영 선포식에서는

ESG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마련, 추다현 씨와 김연수 씨는 ESG 경영·공공혁신 부문에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정렬 사장은 "ESG는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되었다"면서 "ESG 경영 선포식이 우리 모두의 포용적 녹색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업 · 농촌 발전 기여 인정

해태음 농촌진흥청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훈장 수훈



농촌진흥청 해태음 청장(정)이 최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장관 레밍 호안)로부터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훈장을 수훈했다. 훈장과 훈장증서는 현지 코로너로 9월 19일 상봉으로 인해 지난 6월 28일 베트남 농업과학원을 통해 KOPIA 베트남 센터에 전달됐다.

해태음 청장은 "이번 수훈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을 추진하면서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 사업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한국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 베트남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소농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전하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해태음 청장은 "이번 수훈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이바지 해 온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베트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8월, 최초로 KOPIA 베트남 센터를 개소하고 베트남 농업 정책에 맞는 현지 맞춤형 농

업기술을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베트남 중북부지역에 적합한 병저항성 팜공 품종 'TK10'을 개발하고 종자를 증식, 보급하는 사업을 펼쳐 팜공 생산성은 21.7%, 농가소득은 60.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국의 우수 채소 품종에 대한 현지 적응성 조사를 실시해 선발한 6작물 8품종이 베트남 국가장래 품종으로 선정됐고, 작물별 맞춤형 재배 기술을 개발해 생산성을 10% 향상시켰다.

2020년부터는 베트남 엔비이에서 팜나무 생산성 향상과 함께 한국의 농업 사육기술을 도입하는 양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애누에 공동 사육을 통해 노동력 30% 절감, 고품질 고치 수량 18% 증대 성과를 올렸으며, 2022년까지 양잠 기술 발전과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중기 장기제직 무주택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중소기업에 장기 제직 중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제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별공급예정인 '김재 김산 이지을 라프래임'은 계성건설 주시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김제시 검산동 833-1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3세대 + 예비추천 1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3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입주자 사숙(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청약 신청기한 전 청약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wmes.go.kr/san/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국내 할랄식품산업 선진화 · 해외 시장 개척 촉진

식품연, 인증기관 4곳과 협약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영희 이하 식품연)은 지난달 29일 국내 할랄인증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연(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할랄식품 산업의 선진화 및 해외 할랄 시장개척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식품연(연)과 국내 할랄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사)할랄협회·한국할랄인증원·(유)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내 할랄식품 산업의 선진화 및 식품기업의 해외 할랄 시장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할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국내 할랄인증이 해외 할랄 시장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 국가의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UAE, 파키스탄에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할랄제품보장법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해당국들은 수입식품에 대해 자국의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그 외 할랄인증의 경우에는 자국의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달 29일 국내 할랄인증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의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위해 필수 요구조건 중 하나인 '할랄연구실 보유 또는 할랄연구실과 업무협약 체결'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상호인정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연(연)의 할랄연구실은 주요 하람 성분(에탄올, 돼지성분) 분석에 대한 ISO/IEC 17025(KOLAS) 인증을 받아 할랄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에 대한 분석지원을 하고 있으며, JAKIM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할랄 과학 분야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

국내 식품 수출기업은 해외 할랄인

증 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이 없는 관계로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번 협약으로 국내 할랄인증기관들과 해외 할랄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및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식품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연(연)은 국내 할랄인증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내외 할랄인증기관 간 상호인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할랄 식품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은, ESG 지속가능채권 800억 추가 발행

친환경 ·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등에 투자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800억 원 규모의 원화 ESG채권을 추가 발행하면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지방은행 최초 'ESG인중' 최고등급을 획득, 700억 규모의 ESG 채권 발행 후 3개월만이다.

ESG채권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나뉜다.

전북은행이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은 '지속가능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등에 투자된다.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ESG인 중등급채도를 도입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사회적 채권 가운데 최고 등급인 'STBI' 등급을 받아 채권의 투명성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제조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금융서비스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ESG채권 발행 등 ESG경영을 확대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7월 도내 중기 체감경기 전월보다 ↑

경기전망지수 71.5p로 0.3p 소폭 올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30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21년 7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를 실시한 결과, 전북지역의 7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71.5로 전월대비 0.3p 소폭 상승(전년동월대비 11.0p 하락)했다.

이는 중제조업에서는 원자재가격 부담 등 경기분화요인이 작용하고, 비제조 중소기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등 대내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79.5로 전월 대비 2.7p 하락 전년동월대비 4.8p 하

락했고, 비제조업은 61.4로 전월 대비 4.4p 상승 전년동월대비 19.0p 하락해 업종 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0.4→70.8), 자금사정(68.8→69.2), 고용수준(88.8→89.6)에서 상승했고, 수출(94.4→92.1), 영업이익(68.1→67.3)에서는 하락했다.

2021년 6월 중소기업의 경영여로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62.3%), '인건비 상승'(47.7%), '원자재 가격 상승'(33.1%), '자금조달 곤란'(26.9%), '업체간 파달경쟁'(26.2%), '인력회보 곤란'(21.5%)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김제농협 경제사업부 이전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29일 교월동에 위치한 본점신청사 내에 100여평 규모의 경제사업부 이전 및 지제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그동안 경제사업부는 본점과 다른곳에 위치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농민조합원과 이용객의 불편함이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리모델링해 이전한 경제사업부는 본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영농자재뿐만 아니라 하나로마트와 본점 신용사업도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윈스탑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정용 조합장은 "그동안 경제사업부는 조합원과 이용객의 동선에서 벗어나 불편함이 있었지만 경제사업부가 이전함으로써 신용업무, 하나로마트, 영농자재까지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 후원 나서 | 신협, 4월 전주시와 협약 일환으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을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협은 지난 4월 30일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체결한 '전통한지 계승·발전과 세계적 한지산업도시 기반 조성'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 사업'에 총 7,000만 원을 후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 사업은 전통한지 복원과 생산 전주한지의 명맥 유지와 기술계승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제식 교육과 한지장 노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협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이하 전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신협과 전당은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생 모집을 4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했으며, 지원자들의 전통한지뜨기 시연, 개인프레젠테이션 발표, 인터뷰 등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을 6월 14일에 발표하고, 7월 1



일부러 본격적인 후계자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

후계자 교육과정은 향후 2년간 진행되며, 전주한지장 4인의 현장실습 교육과 전당 산하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의 이론교육을 통해 전주한지장 후계자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2년간 수료한 후계자에게는 3가지 특전이 제공되는데, 첫째 한지 관련 공공기관 및 생산업체 취업 추천, 둘째, 전주한지협동조합 기술관리직 임용, 셋째, 한지 공장 창업지원이다.

아울러 선발된 후계자가 장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과정 및 선발 당시의 모습은 유튜브 등의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이를 통해 전통한지의 우수성은 물론 전년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전주한지장 후계자의 이름다운 동행을 선보이며 전통한지와 전주한지장에 대한 많은 공감과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전주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가는 전주한지장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후원으로 전주한지의 확산보급에 힘써 전주한지를 부흥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과 지역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협은 2018년 전주시와 전통한지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특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 공고... 오늘부터 관급공사 입찰 적용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성)는 7월 1일부터 관급공사 입찰(FQ 및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2020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새롭게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부채비율은 106.45%(2019년 110.3%), 유동비율은 160.38%(2019년 159.10%)로 경영상태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된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구분	단위	평균비율
부채비율	%	106.45
유동비율	%	160.38
차입금의존도	%	21.24
영양이익(대비)자보상비율	배	5.11
매출액영업이익률	%	4.67
매출액순이익률	%	4.15
총자산순이익률	%	3.22
총자산대비용현금흐름비율	%	4.48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회	0.80
설기술투자비율	%	0.07

2021년 7월 1일 공고부터 오는 2022년 6월 30일 공고까지 적용받게 된다. 증명서는 인터넷(<http://art.cak.or.kr>) 발급 또는 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